

수기

공화국은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써나갑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위대한 전승의 날인 7.27입니다.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감회가 새롭습니다.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떠벌이던 미제와의 전면대결전에서 통장훈을 부르고 승리의 단상에 놓여 올랐던 역사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어느덧 69번째 년도를 새기고 있습니다. 전승 69돐!

불러보고 또 불러봐도 뿌듯한 긍지와 크나큰 자랑으로 가슴은 한껏 부풀어오릅니다.

그렇게 놓고보면 세월이란 참으로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70여년전 《조국보위의 노래》를 합창해 부르며 원주격멸의 길에 나섰다 10대의 세파란 젊은이가 이제는 90고령의 늙은이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저의 가슴속에는 하늘도 모르면 흐려지고 흠마저 불타던 그 날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들지 않는 생명을 서슴없이 바쳐 싸우던 못잊을 그 시절이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국은 뜻밖에 틀어막힌 돌발적인 중대 고비를 과감히 이겨내며 새로운 승리로 또 다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태의 전승절은 사랑들의 가슴에 류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언하건대 오늘의 방역대전에서도 공화국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그 누구도 영원히 가질수 없는 가장 강위력한 무기가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집에는 뜻깊은 기념사건들이 한뼉을 꽂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4차 전국로병대회를 비롯한 국가적인 대회들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찍은 사랑의 기념사건들입니다. 참 뜻깊은 사진들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 사진들을 보고 또 보며 저는 잊지 못할 그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곤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 회때마다 우리 전령로병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신 귀중한 스승》, 《전리미의 기상으로 자주강국의 러전을 다진 주인공》, 《승고한 정신과 넉을 후대들에게 심어준 위대한 스승》, 《항상 공경하고 귀감으로 모시는 혁명의 로선배》, 《전설적인 영웅시대의 주인공들》, 《고마운 은인들이며 집다운 스승들》로 거듭 감사를 불러주시었습니다.

지금도 저의 귀에는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로병동지들이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그이의 음성 이 어찌런듯 울려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님 이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 추이추오르는 경경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수십년 세월 철창살에 갇혀있었다보니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헌신한 스승이 없으니 너무 한그루 심은적 없는 저입니다. 더구나 이제 그는 그저 마음뿐이건만 그이에게는 로병대회 때마다 불러주시고 매번 주석단에 앉혀주시니 하늘같은 이 사랑을 눈에 훤히 들어간들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개활은 사랑과 믿음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전승로병으로, 온 세상이 다 아는 신병의 강자로 될수 있었으며 오늘까지 로당 임장하며 복락을 누릴수 있겠습니까.

늙으면 추억속에 산다고 오 이렇게 전승 69돐을 가까이 하고보니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해인 1950년 저의 나이는 18살이

였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것은 키도 크지 않고 몸도 약한 저를 두고 온 부대가 몽땅 《꼬마》라고 부르던 일입니다. 그때 구대원들은 어린 나를 두고 격정이 많았지만 그 《꼬마》가 한강을 단숨에 도하했고 전우들의 피로 뚫어버지던 막동강까지 용감하게 진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도 굴함없이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로 마음달라졌고 별적의 기상 안고 재진격의 길에 올라 위대한 승리의 날, 전승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학교를 다니던 제가 펜을 총으로 바꾸어쥐고 전선으로 달려나간것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내 조국, 내 고향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은 조국이 무엇인지 다는 알수 없었던 제가 전쟁 3년간 단 한번의 동요나 변심이 없이 용감하게 싸울수 있는것은 우리 전사들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육친의 사랑이 전부로 흘러들었기때문입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그 날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전설이 꽃피나 세상을 깜짝 놀래웠습니까.

가치가 높고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서 1211고지용사들에게 콩나물을 길러 먹도록 공을 보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저도 1211고지방위 전투에 참가하였는데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그 전설의 체험자였습니다.

그때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공을 받아내고 격정에 넘쳐있던 전우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는 그 공으로 콩나물도 길러먹고 비지도 해먹으며 영웅의 고지, 1211고지를 지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포를 고지우로 올려다놓고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안긴 통쾌한 전투가 바로 그때 있던 전투입니다. 예로부터 사랑은 짐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지니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들의 건강이 넘어져서야 부식물까지 격정해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같이신분을 세계 그 어느 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있던 말입니다.

하기에 외국의 한 여성문필가는 자기의 글 《천출명장 김일성:미국을 슬프게 하디다》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차차 단 병영생활속에, 전쟁의 폭풍속에 사랑과 정이 파멸했던 세계군력사, 전쟁사에 종지부를 찍으셨던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정이 열쇠로 병사들의 심장의 문을 열고 인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천출명장이시였다. 무기는 누구나 가질수 있다. 하지만 명장의 사랑과 인민의 보답으로 이루어지는 단결의 성세는 그 어느 나라나 가질수 없다. 조선만이 가진 성세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원수를 이긴 전쟁이기도 합니다.

당시 랑동강까지 진격해나갔던 저는 부대를 따라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단련이 부족 해서인지 우리가 후퇴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적들은 막아보려고 별의 별 술책을 다 썼고 열전대 덩친 격으로 식량까지 떨어졌 행군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온종일 꼬박 굶으며 행군한적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배고플 때면 저는 저도 모르게 곁에서 걷는 지휘관의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저음의 손을 꼭 잡아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 힘들지? ... 그래

도 우린 꼭 장군님께서 계시는 복으로 가야 해.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며칠 전 《조국의 촛등을 피로써 사수하자》는 방송연설에서 적들이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침략자들을 무찌르는 조국해방의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우리의 용감한 인민군대와 빨치산들 그리고 전체 후방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을 막아낼수 없다고 하시었다누만.

미인크로. 장군님만 계시다면 살길도 없었고 전쟁에서도 이긴다니까.》

그렇습니다. 장군님은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는 장군님만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다고 세계전쟁사에서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할수 있었던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은 인간생활에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실지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옥중투쟁은 세계유명사에도 없는 투쟁입니다.

제가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기선생이 전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주었습니다. 《리유는 하나, 수령님께서 계시는한 우리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전쟁의 나날 저의 가슴속에 신병의 기둥으로 깊이 뿌리내린것이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조국과 인민, 겨레에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자기 평도자에 대한 믿음을 불가항력으로 간직한 전체 인민과 군대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해 이루어졌었습니다.

전쟁의 총포성이 멎은 때로 부터 퍼그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을 암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은 오늘도 계속되고있습니다. 더우기 우리 공화국은 세계를 대대양속해 빠뜨린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이 눈에 보이는 적과의 치열한 싸움이라면 이 악성비루스와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불길》은 전세계에 라번저 수억명이 감염되고 수백만명이 사망하는 등 끔찍한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사랑과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활기넘친 거리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 웃음소리 들을 때면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안을 지키기 위해 불문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이 가슴이 울려옵니다.

악성전염병이 발생한 첫 시기부터 국가방역사업을 귀중히 인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시고 국가사업의 최우선순위에 놓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십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전체 인민이 견제하고 견강해야 땅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것이 다 있다고 하시며 인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고 헌신의 낮과 밤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송구스럽게도 저는 놀라운 사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글세 가족들과 함께 양

덕은천문화휴양지에 가서 휴양을 하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로 말하면 지금과 같이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던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 그렇듯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고 생각하니 고향에도 눈곱이 찌릿이 젖어들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따뜻이 감싸안아주는 아버지 사랑을 안고 양덕은천문화휴양지에 도착한 우리들은 첫날부터 귀빈으로 참모로 특별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곰이굴이 뻗어오른 외랑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산천경계, 온정봉의 푸르른 숲속에 꾸러진 야외온천장과 금당화욕조, 숲일욕조, 약썩욕조 등 수십개의 개별욕조들로 이루어진 실내온천장에서 덕수맞기, 온갖 병이 다 물러가는것같은 약은탕... 어디 그뿐입니까. 휴양의 전 기간 매끼 서로 다른 음식들로 풍성한 식탁을 마주하여 세상별미, 진미를 다 맛보았고 각종 운동기와 문화오락기재들이 가득찬 종합봉사소마다에서 봉사도 받고 세상에 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별의별 치료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에게만 차례지는 행운이겠습니까.

이번에 돌발적인 위기발생으로 최대비상방역체제로 이행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물려지는 경애하는 그이의 육친적사랑은 그 무슨 말과 글로도 다 담을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국가회의를 소집하시고 방역대전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고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언제나 인민과 문명을 함께 갈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하신 상비약품들을 어렵고 힘든 세대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존안에서 저는 공화국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는 종종 사랑과 믿음이 없는 인간생활을 생각할수 있었는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인류역사와 함께 사랑과 믿음이란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위대한 사랑의 세계, 크나큰 믿음을 간직하신 인간사회의 최고화신은 아마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믿고 한마음 다해 따르고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전에도 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방역기술적수단보다 인민들의 자각적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역이 더 인민대중에게 의거하는 전민항전, 전민합체로써만 대응을 이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그이의 심중에 자리잡은 이 나라 인민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악성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불사악이 되고 커다란 힘이 되어 오늘의 방역위기를 성과적으로 타개해가고있으며 인민을 위한 수많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온실농장건설 등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공화국, 오늘도 사랑과 믿음으로 방역대전을 깨끗이 이겨나가는 나라, 사회주의조선은 사랑과 믿음으로 강하고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비전향장기수 김동기

어제나 어제나 평행영구 진리

6월뒤에는 7월이 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대 3년간의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공화국의 빛나는 승리로 끝난 이후에도 말은 새로운 의미를 담고 불리워지게 되었다. 6.25뒤에는 7.27이 있다! 의미심장한 이 말을 조용히 새겨보느라 보면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라고도 할수 있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공화국이 제국주의우두머리와 맞서싸워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긍지감이 가슴이 부풀해진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것인가. 여기에 이런 이야기 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어느날 밤 전선길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며 복으로 행진해가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인들중에서 제일 어려보이는 대원에게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으시자 그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대원은 최고사령관동지의 새 전투명령을 받으리 간다고 합창해 대답하였다. 바로 그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이 인민군전사들만이 아닌 공화국인민모두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고있었기에 조국의 한치 땅을 지켜 피흘려 쓰러지면서도 원수들을 무릎꿇고 소를 대신하여 발을 갈면서 도 알곡생산을 늘여 전선에 더 많은 쌀을 보내주었으며 나아온 소년, 소녀들이 총과 수류탄을 잡고 침략자들에게 죽음을 안기여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것이다. 전 미군주장관 마셜은 《신화는 깨어지고말았다. 미국은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렬한 나라가 아니었다.》고 실로했다. 미국의 패배는 우리 공화국을 잘못 보고 덤벼든데 있다. 공화국군의 전투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셨다. 또 자신들의 실생활체험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길은 곧 승리이고 진리를 배에 새기고 진정한 인민의 국가인 공화국을 목숨보따 더 귀중히 여기는 위대한 인민과 군대가 있었다. 이런 위대한 나라를 어느 누가 당할수 있다 말인가.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의 장브랫틀러가 6.25전쟁을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된 전쟁》이었다고 비명을 지른것은 미국이 두고두고 새겨야 할 교훈적인 말로 되었다. 하지만 쓰디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미국은 전후에도 새로운 조선전쟁도발을 위해 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정치 군사적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무장간첩선 《푸에블

로》호침입사건, 《EC-121》대형간첩비행기침입사건, 판문점사건, 1990년대의 핵소포대조선압살책동...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하였지만 미국은 이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단 0.001mm도 침범할수 없었으며 공화국인민들의 행복생활, 아름다운 꿈과 밝은 미래를 빼앗을수 없었다. 오늘 공화국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는 대비가 되지않게 그 힘과 지위가 최대로 강화되고 높아졌다. 조선은 절대적힘을 지닌 세계의 최강국이 되고 이것은 세계의 력학관계와 정치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이 위대한 공화국을 이끌고 승리와 기적만을 안아오시는분이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지난 4월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을 경축하는 뜻깊은 열병행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명하시였다. 지금 공화국의 무력은 그 어떤 싸움에도 자신있게 준비되어있다는데 대하여, 어떤 세력이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수처와 패배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공화국에 덤벼든다면 중국적인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승리는 불세출의 평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것이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리해현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몽겨버리며 (1)

공화국은 지난 시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의 도발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국권과 인민의 안위를 견결히 수호해왔다. 강대강, 정면승부, 이것은 공화국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며 일관한 립장이다.

전쟁도발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어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리승만도당을 사육하여 건국 영웅으로 들뜬던 평화로운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몰아왔다. 당시 공화국은 창건된지 불과 2년, 정규적무력이 창건전년도 2년밖에 안되었다. 이런 공화국과 조선인민을 앞잡아보고 미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것이다. 《아침은 해우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으며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게 될것》이라고 조선인민들의 기도를하던 그들은 소멸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이제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수처와 패배의 력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공화국에 덤벼든다면 중국적인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승리는 불세출의 평장을 높이 모신 조선의 것이다.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매일도 변함없는 력사의 진리이다. 리해현

대한 배향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한다. 《...놈들이 어리석기 짝이 없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그렇다. 미국은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 적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갈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들고 공화국의 군대는 즉시전선에 걸쳐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갔다.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불의적인 무력침공을 제때에 좌절시키고 전 전선에 걸쳐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넘어간 군대는 세계에서 오직 만고절세위인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뿐이다. 침략세력을 무찌르며 남진의 길에 오른 인민군대는 전쟁에서 3일만에 서울해방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고 불과 몇개월만에 남조선 전지역의 90%이상과 인구의 92%이상을 해방하는 혁혁한 전과를 이룩하였다. 침략세력을 용납하지 않고

어 저들의 기도를 달성하지 못한 미제침략자들은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으로 공화국북부 전 지역을 감점하겠다고 미쳐날뛰면서 새로운 《총공세》를 벌렸다.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침략자들의 무모한 공세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11월하순 전 전선에서 총반공적으로 넘어갔다. 전선서부의 인민군부대들은 청천강지역의 여럿곳에서 적에게 무리죽음을 안기었고 전선동부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장진호반일대에서 미군을 포위섬멸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제2전선부대들은 강력한 배후타격을 벌려 적들을 격멸소탕하였다. 이처럼 공화국의 인민군대는 미국이 요란스레 떠들며 미친듯이 감행한 《크리스마스총공세》를 여지없이 짓부서버렸다. 본사기자 리연선

